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0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4장 10-16절

설교제목 :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여 죽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사건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10절)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고,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11절) 그런데 10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전 성경은 원어적 의미로 번역했는데, 개역개정판이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10절에 원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란 표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표현되어 있고, 또한 11절에도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란 표현이 거듭 나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정체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투석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가 범한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출20:7)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잘못 사용하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했다는 의미가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가 됩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가 **여호와와 이름을 경멸할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방 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당신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협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은 여호와와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정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4장은 십계명의 3계명을 가나안 상황에 적용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는 자해 행위나 눈썹 사이 이마위의 털을 미는 행위 즉 머리를 삭발하는 애도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심하게 애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신14:1)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풍습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신14:2)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로 번역된 ‘**셰굴라**’는 ‘**개인의 소유물, 특별한 보물**’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개인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름과 정체성을 연결합니다. 이처럼 신명기 기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제 3계명을 해설하는 문맥의 서두인 1절과 2절의 첫단어가 ‘여호와와 자녀’ ‘여호와와 성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는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던졌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 10절과 11절에 3번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행위는 그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난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야. 나는 교회에 속한 교인이야'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라고 합니다.(사 43:7)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실존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지는 자란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독사인데, 리플렉트(reflect) 즉 반사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자란 의미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는 속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전에 무엇이 두어졌습니까. 언약궤 즉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까. 율법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까. 따라서 성전된 우리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사는 삶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투석형을 당한 자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원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